

축산물등급판정 현장체험 및 한우사육 농장체험을 다녀와서...

운영팀 과장대리 박민희

작년부터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작으로 경영실적평가 등 우리소는 대내외 환경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부근무자의 현장등급판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공감대 제고를 통한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등급판정업무 현장체험 및 한우사육농장체험이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소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운영팀이 주관하여 실시되었지만 본부의 간부 및 일반직원들의 마음속에는 오래 전부터 이런 경험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본부직원 중 등급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간부 및 행정담당자였고, 내용은 본부의 근거리 작업장을 방문하여 등급판정 현장업무 전 과정 체험부분과 한우사육농장체험부분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등급판정 현장업무 전 과정 체험부분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제1반은 6월2일 6명이, 제2반은 6월3일 5명이, 제3반은 6월8일 5명이 농협서울, 농협부천, (주)협진, 협신식품, 삼성식품, 신원등에 한명씩 출근하여 체험하였다.

나는 제1반으로 6월2일 협신식품에서 하루동안 근무했다.

06:30분부터 냉장고에 들어가 등급판정하는 옆에서 도체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등급판정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등급판정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았다.

또한 사무실환경부분도 신경써서 보았다. 왜냐하면 이번에 배부된 서비스현장 이행표준 실천사항중 하나로 사무실 청결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다.

협신식품의 등급판정사무실은 4년전 즈음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때는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고 돼지계류장 옆이라 악취와 소음이 심했었다. 또한 바닥은 장판이 깔려 있었고 벽은 습기로 들떠 군데군데 곰팡이까지 퍼 있었다. 창문조차 없어 탁한 공기로 갑갑했던 기억이 났다. 그러던 사무실이 2층으로 옮기면서 이제는 창문을 열면 옆 야산의 아카시아 향이 들어 올 정도로 공기가 쾌적해졌다. 바닥도 벽도 더 이상 장판과 벽지가 아니었으며, 지소장 책상 앞의 커다란 양탄화분이 분위기를 한껏 격상시키고 있었다. 많은 변화였다. 물론 직원들의 노력과 협신식품측의 배려의 결과였다.

세상에는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우사육농장체험부분은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제1반은 6월9일 7명이, 제2반은 6월10일 8명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의 대관령한우 사육농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은 본부 직원 중 등급판정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간부 및 행정담당자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의 대관령한우 사육농장 방문은 이 곳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현장근무 등급판정사들도 체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우사육농장체험이라고 하여 한우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체험해 보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단순히 한우사육부분만이 아니라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의 경제사업분야 경영방식 및 경영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요즘 정부에서 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브랜드경영체중 하나로 이 조합의 진취적인 경영방식은 협동조합이라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일반 기업체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브랜드경영체에 대해서 많이 모르겠으나, 내겐 충분히 설득력 있고 배울 점이 많은 조합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Team Building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각 팀에서 자신들의 사업에 필요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팀마다 필요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편찮은 system인 것 같았다. 이것 외에도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인상적인 것은 강원도 고원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이 조합이 세계와도 호흡하며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조합은 직원, 조합원 및 조합관계자들을 가능한 한 자주 해외에 보내 준다고 한다. 해외에 나가 많이 보고 많이 들어 사과의 영역을 넓히려는 취지이다. 이것이 곧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나를 포함한 누구나 다 부러워할만한 부분인 것 같다.

이번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니 이러한 프로그램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소장님, 바쁘신 중에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신 지소의 여러직원분들 그리고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